전북 교육 소식

김승환 교육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축하 예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7월 13일 14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부총리를 예방하였다.

이날 예방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회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감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지원국장, 대변인이 배석하였다.

김상곤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을 바꾸어 오신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과거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이끌었던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북도교육청 '안전교육자료' 매주 보급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매주 '사이(4E) 좋은 안전교육' 자료를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간별, 계절별, 장소별 등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사이(4E) 좋은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해 주간 단위로 매주 월요일 도내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자료에는 학교안전공제회 학생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주간 안전사고 예보,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학교자체별 안전사고 토론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에게 메신저를 통해 보급되면 교감은 교내 교사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이나 담임교사가 조회/종례시간을 활용하여 '5분 내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습관형성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4E) 좋은 안전교육'이란 누구나 안전할 권리(Everyone), 매일 매일 안전할 권리(Everyday),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Everywhere), 모든 것(상황)에서 안전할 권리(Everything)를 의미한다.

전북도교육청,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학교 선정

3년간 50억여 원 지원받아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매직) 육성 사업' 대상으로 1차 6개교와 2차 3개교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약 5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은 학교가 지역여건 및 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내 1차 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기계공업고, 남원용성고, 오수고, 원광정보예술고, 이리공업고, 학산고이며, 2차 공모에는 삼례공업고, 전주공업고, 진경여고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지원되며, 학교당 평균 연간 1.9억 원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로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만들기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개발 및 학교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으로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기반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및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는데 지원한다. 세 번째로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사업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벽미화와 학생 생활·편의 시설 개선,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및 예술동아리(연극, 합창 등) 시설과 악기교육을 지원한다.

네 번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 공원조성, 학부모 및 노인 대상 평생학습실(실습실 등) 형태의 교실 구축, 지역축제 참여·협조 및 자원봉사 활동과 초·중학생 진로체험 공간을 구축, 운영한다.

다섯 번째로 인성·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부진 요인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클리닉 운영,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취업(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등 체계적 취업지원 활동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전국 최대 규모 농촌봉사 파견

17일부터 일주일간…1,255명 최대 규모 봉사활동

"땀의 소중함, 농촌봉사활동에서 배워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하절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인원을 농촌봉사활동에 파견한다.

전북대는 7월 17일 오전 10시 대학 체육관에서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농활에 참여하는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 1,255명으로 지난해보다 100여 명이 늘어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은 진안과 무주, 장수, 부안, 고창 등으로 나뉘어 일주일 동안 마을 환경 정리와 작물 수확 등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

특히 이남호 총장도 7월 18일 오전 진안군 부귀면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찾아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이남호 총장은 "오늘 농활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가 천이백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전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농촌사랑이 최고 중의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아픔을 모두 치유할 순 없겠지만,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땀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세상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험생을 키우기 위해 사회봉사를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졸업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농업인대학, 주경야독 프로그램 열기 뜨거워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익산농업인대학 양봉산업반 야간교육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저녁 6~10시)에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양봉교육은 지난 5월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나 6~7월이 양봉 농업인들이 바쁜 기간임을 고려해 야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양봉산업반에서는 주로 꿀벌을 키우는 기술교육을 비롯해 프로폴로스·화분 채취 등 양봉산물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양봉에 가장 중요한 꿀벌 키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최병욱(여산면 관연마을) 씨는 "7월까지는 양봉농가들이 채밀(採蜜)하는 기간이라 1년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주간에 교육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야간교육을 운영해 낮에는 양봉장에서 작업하고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생들의 참여도 높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양봉교육 외에도 특화품목(딸기, 토마토), 정보화 농업인 교육 등 작목별로 바쁜 주요 시기에는 배우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시로 야간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최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외 나눔 행사 전달식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나눔 행사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17일 오후 제1주차장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의류 32,152점, 신발 2,938점, 가방 1,419점, 모자 1,832점 등 총 38,341점이며 이중 600상자 34,053점은 해외 나눔 행사에 기부됐으며, 나머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도교육청은 7월 초 도내 6개시 지역과 완주군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물품을 기부 받았다.

기부 물품은 의류, 신발, 모자, 가방 4종으로, 기부받은 물품은 1·2차 선별과정과 박스화 작업을 거쳐 컨테이너에 적재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해외 운송을 통해 아프리카 짐바브웨스카우트 연맹에 물품을 보내면, 현지 스카우트 단원 및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물품이 꼭 필요한 지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돼 전북이 세계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자연재해 대응체제 철저 점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16일 300㎜가 넘는 폭우로 인명과 재산 등 큰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도내에서도 언제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충북지역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상황발생 시 학생안전과 시설안전을 위한 비상체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인적·물적 수단만으로 완벽히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19, 지자체 등과의 연결망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고, "성취평가제야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중 하나"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